

487장 -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 (1) 어두움 후에 빛이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쉬이 있네
- (2)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 (3)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 (4)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545장 -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 (1)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 (2) 이 눈이 보기에어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 (3)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 후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 담당

6/9(화)	6/10(수)	6/11(목)	6/12(금)	6/13(토)	6/15(월)
김덕만 안수집사	강협수 안수집사	한상열 안수집사	김종진 안수집사	김두연1 안수집사	이범우 안수집사

2026년 6월 12일(금)

#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성락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송 .....	487장
기도 .....	김종진 안수집사
성경봉독 .....	여호수아 12장 1, 7-8절
찬양 .....	나의 예배는 멈추지 않네
설교 .....	『완약함의 결과』
기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	545장
축도 .....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여호수아 12장 1, 7-8절 >

1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7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8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겟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 참고 구절

수 11:20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던대라

시 14: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6월 12일(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악을 행하며 자신들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신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직면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믿음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하여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순전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교회를 날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방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신 새문안의 여섯 번째 예배당을 온전히 헌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헌당을 위한 모든 과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 온전한 영적 헌당이 선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금요일 밤 기도회에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당회와 제직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모든 분야가 말씀의 가치 위에 세워져 든든히 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